		보도설명자료				
		배포일시	2019. 11. 25(월) / 총 3 매(본문3)			
담 당 부 서	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	rlrləl	• 과장 김기용, 팀장 이혜선, 사무관 이윤하 • ☎ (044) 201 - 3528			
	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경제 협력 팀	담당자	• 과장 노판열, 사무관 정희영 • ☎ (02) 397 - 7747			
	보 도 일 시	11월 25일 15:0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.				

인도네시아에 한국형 행정수도 수출 첫 걸음 디뎌!

- 한국-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수도이전 협력 MOU 체결 -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**11월 25일**(월)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(장관 바수키 하디물요노, Basuki Hadimuljono)와 "한국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(MOU)"를 체결하였다.
 - 이번 MOU는 부산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(Joko Widodo)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이루어졌으며, 양국 정상은 새로운 협력의 시작을 축하하였다.
- □ 인도네시아는 면적 190만㎢(한반도의 약9배)에 인구 2.58억명(동남아 전체 인구의 40%, 세계 4위)이 거주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,
 -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**2대 교역국**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(평균연령 29세) **성장잠재력**이 큰 나라이다.
 - * 최근 경제성장률 年 5% 수준
- □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역 불균형 해소* 등을 위해 **수도 이전**을 **추진** 중('17~)이며, 최근(8.26) 대상지와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.
 - * 자바섬(수도 자카르타 위치): 인구 56.5% 거주, GDP 비중 58%

- 현 수도인 자카르타는 도시과밀로 인한 교통체증 등 문제가 심각 하고, 지구 온난화로 인한 침수 가능성 등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 으로, 새로운 수도는 보르네오섬에 건설될 예정이다.
- 총 사업비는 약 4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,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, 민관합동투자(PPP), 민간투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.
 - *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 : 총 사업비 22.5조 원(국비 8.5조 원, LH 14조 원)

── 【 행정수도 이전계획 】 ──

- o (대상지) 보르네오섬 칼리만탄 지역
- (실행계획) '20년 마스터플랜 및 도시계획 수립, 법령 정비 및 조직 신설
 등 실행기반 마련 → '21년 착공 → '24년 수도 이전
- ㅇ (**주요기능**) 現수도는 경제·금융 중심지, 新수도는 행정 중심지로 이원화
- □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의 세종시를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밝혔으며, 바수키 장관('19.6월 방한)은 **김현미 장관**과의 **면담**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**우리 정부**의 **노하우**를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 - 이에 우리 정부가 적극 화답하여 이번 MOU 체결로 이어졌다.
- □ 이번 MOU에서 한국(국토교통부)과 인도네시아(공공사업주택부)는 향후 스마트시티, 도로, 수자원* 관련 **수도이전 및 개발**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,
 - *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수자원의 6%를 보유, 지하수 사용이 많고 저수·수도 시설 부족(보급률 22%) → 지반침하 및 침수 피해 지속 발생
 - 도시계획, 개발, 인프라와 주택건설 기술에 대해 정보교환, 경험 공유, 전문가 파견,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 - 또한, 이번 MOU에서는 이례적으로 각 분야별 협력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 향후 실행력을 높였다.

바수키	장관은	이번]	MOU에	앞서	개최된 -	부산 여	게코델타	스마트	
시티 착	공식에도	방문	하여 첨단	물관	리, 로봇,	인공지	지능 등의] 기술이	
집약된 한국형 스마트시티 에 깊은 관심 을 보였다.									

- 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"단일 기반시설(인프라) 협력사업에서 나아가 도시 등 **국토개발 전반**에 대한 협력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."면서,
 - "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과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성공적인 G2G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."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 건설지원과 이윤하 사무관(☎ 044-201-352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